

개의 진행성 마비에 Thiamine과 Prednisolone의 효과

郭 圭 容

충남가축병원

몇 년 전 축전에서 일측 후지에 마비가 돌발되고 2~3 일 후 양 후지에 마비가 와서 요부, 전지로 진행되고 곧 이어 경부도 마비가 와서 4~7일 안에 폐사되는 진행성 마비를 관찰한 후 그 치료법을 강구하던 중 thiamine 과 prednisolone을 사용하여 효과를 본 일이 있었다.

症例 1: 잡종견, ♀, 1세, (1976년)

전에 병으로 치료받은 일이 없었으며 건강한 개가 갑자기 좌측 후지의 파행이 점차 심하여져 2일만에 태원하였다. 환지의 근무력증과 피부에 탄력성이 없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thiamine HCl 15mg, prednisolone 10mg을 1일양(4회 분복)으로 하여 3일간 경구 투여하고 thiamine HCl 10mg과 prednisolone 5mg을 1일양(4회 분복)으로 하여 4일간 더 경구투여하였다.

3일간 투약후 호전되었고 4일간 더 투약후 완전히 회복하였다.

症例 2: 테리어, ♀, 2세, (1977년)

한 배 분만한 경력이 있고, 건강하였으며 치료받은 일은 없었다. 저녁에 산책나가 개을 독에서 뛰어들었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독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좌측 후지를 절어서 안고 귀가하여 환지를 살펴 보았으나 이상이 없어 안정시켰다. 차도가 없어 인근 가축병원에서 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은 더욱 심하여져서 식욕도 줄었고 짓지도 않으며 좌측 후지만 파행하던 것이 후구를 못쓰게 되어 발병 4일째 태원하였다.

요마비로 완전히 후구를 못쓰며 복부를 받쳐 주지 않으면 양 후지를 옆으로 벌리고 엎드려 전지로 상체만 들며, 횡와시키면 흉상체를 일으키지 못하였다. 체온은 약간 낮았고 호흡과 심박동에는 이상이 없었다. 피부에 탄력성이 없었고 환부는 냉감이 있었으며 근무력증으로 후지와 꼬리의 저항이 없었고 특이한 점은 지혈검자로 압박할 때 양 후지, 꼬리 및 요부까지 지각반응이 없었다.

의식은 정상이었으며 신음도 없었다. 사료는 조금씩 먹

으며 배분, 배뇨는 복와나 횡와 자세로 하며 정상이었다.

thiamine HCl 50mg의 피하주사와 thiamine HCl 15mg, prednisolone 15mg을 1일양(4회 분복)으로 하여 2일간 투여한 후 thiamine HCl 15mg, prednisolone 10mg과 ascorbic acid 25mg을 1일양으로 하여 3일간 또 thiamine HCl 15mg, prednisolone 5mg과 ascorbic acid 25mg을 1일양으로 하여 2일간 경구 투여하였다.

1일 치료후 발가락 아랫부분에 지각반응이 있었고 2일후 발목과 꼬리에 지각반응이 소생되었으며 5일후 환부에 지각반응이 완전히 소생되어 기립도 하였으며 7일 후 후부를 흔들면서 보행하였다. 마지막 치료를 받은후 5일째 부티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심하지 않았던 증례1에서는 7일 동안 thiamine HCl 85mg, prednisolone 50mg을 경구투여하여 완전히 회복하였으며 요마비까지 진행된 증례 2의 심한 상태에서는 thiamine HCl 50mg씩 2일간 주사와 thiamine HCl 105mg, prednisolone 70mg, ascorbic acid 125mg을 7일 동안 경구투여하여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처음 세파아트 전에서 마비가 왔을 때는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생각하고 축주에게 관찰만 하게 하였던 바 마비가 상행성으로 진행되어 폐사하였다.

thiamine이 결핍되면 근무력과 다발성 신경염이 발생되므로 thiamine 결핍증이 아닌가 의심하여 thiamine을 택하였으며 신경질환에 prednisolone이 응용되어 prednisolone도 사용하였고, 증례 2에서는 thiamine의 투여량이 많아서 ascorbic acid를 첨가 시켰다.

개의 진행성 마비는 ① 갑자기 돌발되며 ② 한 쪽(좌측) 후지에서 상행성으로 진행되며 ③ 마비부위는 근무력증이 오며 지각반응이 없고 ④ 의식은 정상이나 교통의 표시가 없고 ⑤ 배분과 배뇨는 정상이며 ⑥ thiamine과 prednisolone의 투여로 탈단부위부터 지각반응이 일어나며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242. 전화 온양

5204, 4942)